ISSN 2093-5986(Print)
ISSN 2288-0666(Onlin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1 No.4 pp.67-76 December 2017
https://doi.org/10.12811/kshsm.2017.11.4.067

민간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인건비 투자효율성 비교분석

임정도‡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between General Hospitals and Regional Public Hospitals

Jeong-Do Lim‡
Department of HC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compare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between 12 private general hospitals and 12 regional public hospitals, based on location and size, to examine industry competitiveness in terms of management. **Methods** : From 2011 to 2015, the value added an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were calculated by year. and a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determine and influential factors between private general hospitals and regional public hospitals. **Results** : The total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was 26.85 percent lower than general hospitals compared to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product category most influenced by the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was Stationeries & expendables at general hospitals and Outsourcing at regional public hospitals. **Conclusions** : Regional public hospitals have relatively low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compared to the general hospit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hospital management to reexamine gross revenue relative to total manpower.

Key Words :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General Hospital, Regional Public Hospital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Jeong-Do Lim(limjd5794@cup.ac.kr) Department of HC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Received : May 1, 2017 • Revised : Nov 11, 2017 • Accepted : Nov 29, 2017

Ⅰ. 서론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자립경영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과 부가가치의 증대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1],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관련된 생산성을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3]. 즉, 노동과 자본의 투자에 대한 효율을 평가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활용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분석으로 경영자나 정책 수립가에게 경영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경영체간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발전방향 모색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2].

특히, 인적자원의 활용도는 노동생산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노동생산성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생산요소로 그 자체가 사회적 생산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계설비와 같은 생산수단도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생산성은 직원 1인당 창출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지표로, 이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인적자원의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생산성을 인적자원의 효율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지표는 동일한 시기의 국가나 산업 혹은 경영체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기에 있어서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상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이 동종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직원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노동생산성은 인원수 측면에서는 효율이 높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는 효율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생산성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인건비투자효율로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4][5].

병원조직의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Yang et al.[6]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적효율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과 비용이 모두 높았다고 하였는데, Jung[7]은 비영리병원의 투자효율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지표인 인건비투자효율은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Ha[8]는 지방의료원과 민간 종합병원간의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비교에서 지방의료원과 민간종합병원들은 인건비투자효율이 사업수익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분석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공익성과 수익성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가 규범적으로 공공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사회기능적 또는 정책적·법률적으로 공익성의 의료나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의료의 공익성 수행은 공공의료기관 만이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9].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자립도가 강조되면서 공익성 외에 얼마나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경영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10], 공공의료기관이 적자가 발생된 경우에 그 적자가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1].

또한 Ko[10]는 지방공사의료원들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형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방의료원의 생산성 및 수익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et al.[12]은 지방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성과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지방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였으며, Ha et al.[2]은 지방의료원들의 투자효율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의료원의 인건비투자효율은 사업수익 이익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적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본과 노동의 투입 활용도는 각 지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Lee[13]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생산성에 관한 차이 분석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자본생산성과 인건비투자효율이 낮았다고 하였다.

병원조직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직종의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노동집약적인 조직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확보 및 이에 따른 인적자원의 활용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이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효율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elly & O'Brien은 병원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경영방식도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14], 병원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의 투자와 관련된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8], 특히 병원조직은 노동집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자수와 근로자의 질이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민간주체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지방자치단체주체로 운영지원을 받는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영성과 지표로 창출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인 부가가치생산성과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노동생산성인 인건비투자효율로 살펴보는 인력활용도를 비교 분석하고, 선행연구[6][7][8]에서 인건비투자효율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바, 인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해야할 인건비투자효율 산출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건비투자효율로 살펴본 인력의 활용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경영환경에서 경영관리적 측면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정보로 인건비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계정과목이 구체화되어 구분된 결산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1단계로, 지방의료원들의 정보공개 공시를 통하여 재무제표 계정과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재무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종합병원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를 통하여 계정과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재무정보를 수집하였다.

2단계로,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들의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병상수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12개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12개 지방의료원을 비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재무정보를 통하여 결산연도별로 부가가치와 인건비투자효율을 산출한 후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첫째,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운영효율성(사업수익부가가치율, 인건비투자효율)을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들째,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운영효율성(사업수익부가가치율, 인건비투자효율)을 소재지에 따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인건비투자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출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을 구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가가치생산성과 인건비투자효율 지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과 한국은행[5]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생산성 측면의 효율성지표는 부가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부가가치(Value Added)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가치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 부가가치 산출방식을 참조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부가가치 산출 시 민간병원과 달리 의료비와 구료급량비가 적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종합병원 간에 동일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의 부가가치 산출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수익은 Ha et al.[1]이 제시한 병원자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사업수익을 적용하여 <식 1>과 같이 산출하였다.

즉, 사업수익은 병원에서 투자된 자산을 활용하여 발생되는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병원의 경영활동에 의한 부가가치는 자본과 노동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해 창출되는 사업수익을 적용하였다.

Value Added = Gross Revenue -(Material Costs+Stationeries & Expendables+ Power Utilities+Outsourcing) .....<1>

부가가치생산성은 창출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로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영성과 지표로 부가가치생산성인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식 2>와 같이 산출하였다.

Value Added ratio to Revenue = (Value Added/Revenues)*100 .....<2>

인건비투자효율(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은 인건비에 대해 몇 배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로, 직원 1인당 노동생산성과 함께 대외 경쟁력을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효율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노동생산성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인 인건비투자효율은 <식 3>과 같이 산출하였다.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 (Value Added/Personnel Expenses)*100 ..... <3>

Ⅲ. 연구결과

1.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성

1)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성 비교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산연도별 운영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1>과 같이, 결산연도별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종합병원들의 평균이 69.50%, 지방의료원들의 평균이 70.55%로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산연도별 인건비투자효율은 종합병원들의 평균이 146.74%, 지방의료원들의 평균이 119.89%로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종합병원이 지방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수익부가가치율과 인건비투자효율을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비교하여 보면,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영성과인 창출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인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력의 활용도를 파악하는 인건비투자효율은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의료법인 종합병원들 평균이 종별이 종합병원인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지방의료원들 평균보다 유의하게 26.85% 높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소재지 분포에 따른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성 비교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산연도별 사업수익부가가치율과 인건비투자효율을 소재지를 대도시와 지방도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았다.

<Table 1> Comparison of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Unit: %)

Operational efficiency	Hospital type	period average (M±S.D.)	minimum	maximum	t(p)
Value added ratio to revenue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69.50±6.78	52.89	81.84	-.976 (.331)
	Regional public hospitals	70.55±3.50	63.03	77.66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146.74±18.90	108.29	202.36	8.024 (.000)
	Regional public hospitals	119.89±14.70	81.00	156.53	

첫째,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결산연도별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모두 소재지가 대도시인가 지방도시인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도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그리고 지방도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결산연도별 인건비투자효율은 종합병원은 소재지가 대도시인 경우에 지방도시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는데(평균의 차이 25.97%),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소재지가 대도시인가 지방도시인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도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에는 종합병원 평균이 지방의료원 평균보다 45.93%, 지방도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에는 종합병원 평균이 지방의료원 평균보다 24.96%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인건비투자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투자효율 산출요인

<Table 1>에서 인건비 투자효율이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인건비투자효율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바, 인건비투자효율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by Hospital Type-and Location (Unit: %)

Operational efficiency indicators	Hospital type	Location		t(p)
		Metropolitan	Local city	
Value added ratio to revenue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70.81±1.75	69.32±7.18	.501(.619)
	Regional public hospitals	71.17±3.81	70.37±3.44	.633(.537)
	t(p)	-.219(.829)	-.830(.409)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169.72±10.54	143.75±17.69	5.160(.001)
	Regional public hospitals	123.79±18.90	118.79±13.38	.821(.427)
	t(p)	6.430(.000)	7.391(.000)	

인건비투자효율은 부가가치와 인건비로 산출되며, 부가가치는 수익·재료비·소모품비·동력비·외주용역비로 산출되는바,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인건비투자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1차 회귀분석에서 인건비투자효율 산출과 관련된 구성요인들 중 공선성 통계량(VIF)이 10을 초과하는 변수들이 존재하여(Model 1) 이를 제거 한 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투자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Model 2),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들은 인건비투자효율 산출요소 중 소모품비가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별이 종합병원인 연구대상 지방의료원들에서는 인건비투자효율 산출요소 중 동력비가 유의하게 정(+)의 영향 그리고 외주용역비가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지는 <Table 2>에서 소재지가 대도시인가 지방도시인가에 따른 인건비투자효율은 종합병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지방의료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듯이 의료법인 종합병원에서만 유의하게 인건비투자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Influence Factors on the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Hospital type	Variables	Model 1	Model 2		
		VIF	St. coe. Beta	t(p)	VIF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Constant)			31.352***	
	Stationeries & expendables	5.493	-.375	-4.406***	1.238
	Outsourcing	2.807	-.165	-1.985	1.185
	Material costs	140.088			
	Power utilities	37.859			
	Revenues	387.919			
	Personnel expenses	152.016			
	Location(Metropolitan:0, Local city: 1)	6.276	-.753	-9.438***	1.091
	R^2	.983			.883
	F(p)	130.103 (.000)			50.425(.000)
Regional public hospitals	(Constant)			8.569***	
	Stationeries & expendables	3.763	-.037	-.166	3.007
	Outsourcing	3.410	-.515	-2.236*	3.122
	Material costs	9.684	-.284	-.886	6.035
	Power utilities	8.934	.777	2.365*	6.353
	Revenues	31.058			
	Personnel expenses	15.329			
	Location(Metropolitan:0, Local city: 1)	1.540	-.067	-.423	1.474
	R^2	.947			.253
	F(p)	107.386 (.000)			2.974(.021)

Note 1) Dependent variable: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Note 2) *: p<.01, **: p<.01, ***: p<.001

Ⅳ. 고찰

의료의 공익성은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그 역할이 수행되고 있기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자립성이 강조되면서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10].

Jo et al.[11]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가 발생된 경우에 그 적자가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자립경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강한 병원조직에서는 투입된 노동에 대한 생산성인 인력의 활용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7][8][10].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 간의 생산성측면 경영효율성을 수익창출을 위한 부가가치비율인 부가가치생산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인 인건비 투자효율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인건비투자효율이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지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12개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12개 지방의료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결산연도별 부가가치생산성인 사업수익부가가치율과 인건비투자효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민간주체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지방자치주체로 운영지원을 받는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 간의 사업수익부가가치율과 인건비투자효율 분석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a et al.[2]은 지방의료원의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사업수익이익율이 흑자인 경우에 적자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며, Ha[8]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종합병원 간에는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영성과 지표인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 12개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12개 지방의료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모두 소재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Lee[13]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인건비투자효율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Ha[8]는 지방의료원과 종합병원 간의 투자효율과 경성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종합병원이 지방의료원보다 인건비투자효율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의료법인 종합병원의 인건비투자효율 평균이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건비투자효율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6.85% 더 높았다.

셋째, Ko[10]는 공공병원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의료원들의 인건비투자효율은 소재지가 대도시인 경우에 지방도시에 소재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종별이 종합병원인 연구대상 지방의료원들의 인건비투자효율은 소재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소재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연구대상 의료법인 종합병원은 대도시에 소재한 경우에 지방도시에 소재한 경우보다 인건비투자효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소재지별(대도시, 지방도시)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인건비투자효율 비교 결과, 대도시와 지방도시에서 모두 종합병원의 인건비투자효율이 지방의료원의 인건비투자효율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비교분석하

는데 있어서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재무정보 수집 시 지방의료원과 대응되는 민간병원의 자료수집에 한계에 있어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분석지표는 병원조직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의 활용도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자료와 더 다양한 지표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대외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의 12개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12개 지방의료원 간의 인력활용도를 비교분석 한 결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인건비투자효율은 대도시 지방도시 모두에서 지방의료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인건비투자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제한된 수익의 범위에서 인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주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에서는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활용도인 인건비투자효율이 낮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구조와 인력 및 인건비 구조도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동일 조건으로 산출한 부가가치를 적용한 소재지 분포에 따른 유사규모 비교에서, 사업수익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인 사업수익부가가치율은 의료법인 종합병원과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인 인건비 투자효율은 종별이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의료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바, 이는 지방의료원들이 인건비와 관련된 인력구조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W. Park(1995), The study on Value Added Growth, Management of Technology, Vol.11;43-59.
2. A.H. Ha, Y.J. Kim, D.Y. Cho(2016), Invest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The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3);1-12.
3. Y.M. Jung(2011), The Relationship of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and Operating Marge in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5(1);77-85.
4. H.K Jung(2003), Financial Management, Kyungmunsa, pp.503-504.
5. The Bank of Korea(2009),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pp.29-55.
6. J.H. Yang, C.J. Suh, D.M. Chang(2010), A Study on Influence of Human Resource Efficiency of University Hospitals on Revenue and Expen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1);383-391.
7. Y.M. Jung(2013), Raise Capital type and Investment Efficiency of Hospital Korea, The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3);161-176.
8. A.H. Ha(2017), Comparison between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Private non-profit General Hospitals for Invest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1);523-529.
9. R.I Hwang, S.R. Seo, J.S. Kim, I.D. Choi, S.W.

Moon, S.J. Yun, C.W. Kim(2008), A Study for Evaluation on the Publicness of Medical Services in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search report 2008-14, pp.1-36.

10. M.S. Ko(2008), A Study on Productivity of Public Hospitals in Korea, Wonkw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pp.1-137.
11. N.K. Jo, W.S. Suh(2014),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Efficiency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14(11);772-782.
12. S.M. Kim, S.W. Hwang, S.J. Yoon, J.K. Kang(2013), A Comparison Study of Perform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11);463-470.
13. J.W. Lee(2015), Public Hospitals and Private Hospitals analysis of Productivity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11);7885-7892.
14. O.K. Ha, Y.M. Jung(2013), Investment efficiency and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efficiency, Profitability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32(1);135-151.
15.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2006), Statistics for Hospital Management, pp.11-39.